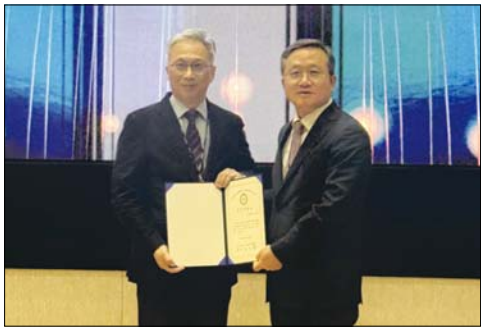




장수군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11일 장수군문화경기장에서 '장수군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선수, 지도자, 관계자들의 성과를 돌아보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도교 패럴림픽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백영복 선수의 '체육훈장 맹호장' 전수식이 함께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수군장애인체육협회가 단체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문선수표창은 정충효 선수와 흥민기 선수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이병현 선수가 생활체육선수표창을 받았고, 김근수 장수군장애인보호작업장 관장과 정길수 장수군장애인체육협회 센터장이 공로패를, 이용석 풋살협회 회장이 감사패를 각각 수상하며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대병원 윤정호 교수, 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전북대학교병원 윤정호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덴티움 KAP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상은 치주학 및 임플란트학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윤 교수의 연구는 높은 독창성과 임상적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항염증, 항산화, 골전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탄닌산미네랄 나노입자(Tannic Acid-Mineral Nanoparticles)가 염증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골세포 활성을 촉진해 신생골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성과는 염증성 치조골 결손 재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소재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제학술지 Biomaterials Science(IF 5.7)에 게재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김미희 교수, 간호대학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김미희 교수(간호학과)가 대학 경쟁력 향상과 후학 양성을 기원하며 간호대학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11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간호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김미희 교수에 대한 깊은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미희 교수가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나를 키워준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평소의 깊은 생각과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실천한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전북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튼튼한 자양분이 되어 연구자, 교육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며, 이제는 모교 간호대학의 교수로서 미래 인재 후배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금은 간호대학 지정기금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미희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받은 가르침과 성장의 기회를 이제는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제가 드린 작은 정성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올해 '위대한 한국인 100인대상' 수상

전북자치도 박신철 주무관, 자원봉사·복지 부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외협력과 자원봉사총괄담당 박신철 주무관이 2025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자원봉사·복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공동체 기여도, 사회적 영향력,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끈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자원봉사·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기여도와 공공가치 실현 정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박신철 주무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원봉사 정책 총괄, 광역단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기반 복지 안전망 강화 등에 앞장서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통해 도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릴레이 간담회 운영,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긴급재난·재해 대응 자원봉사 체계 정비, 지역복지 단체 협력 플랫폼 확대 등 전북형 자원봉사 정책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신철 주무관은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닌 전북 자원봉사자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주어지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자원봉사·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으로도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자원봉사·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35년 미용 외길 김선화 대표, '정읍 제3호 명장' 등극

정읍시가 35년간 미용 외길을 걸어온 장인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비오비뷰티살롱 김선화 대표를 '정읍시 제3호 명장'으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장 선정은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3호 명장의 영예를 안은 김선화 대표는 지난 1987년 미용업계에 입문한 이래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장을 지키며 미용 기술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왔다. 김 대표는 오랜 경력만큼이나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이볼 모류(발의 흐름) 교정' 헤어교정기 등 3건의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며 독자적인 기술 영역을 구축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 국제 이·미용 기술포럼 등 각종 권위 있는 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휩쓰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시는 공정정교 엄격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거쳐 김 대표를 최종 선정했다. 명장으로 선정된 김 대표에게는 인증서와 '정읍시 명장' 현판이 수여되며,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2년간 총 600만원이 지원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선화 명장은 "앞으로 시를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제가 가진 특허 기술인 아이롱 모류 교정 기법과 헤어리턴 원색선 기술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용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중장년층이 실패하지 않도록 1대1 멘토링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다문화 가정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미용 기술을 전수해 자립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동참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회장 이삼석)가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2일 성금 751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번영회원들이 마련한 정성 어린 기탁금으로, 연말연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삼석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해 준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복지 시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동백로 나운상가 번영회는 총 5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참여, 북돋움 두드림 건강검료 후원, 헬린지 등 지역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군산=김만호 기자



앞장서며 나운동의 대표적인 상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CBMC남원비전지회,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는 CBMC남원비전지회(회장 유한진)가 지난 11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김치 5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기부된 김치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한진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개인택시 남원향우회,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지난 11일, 전주 개인택시 남원향우회(회장 박철수)가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남원향우회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남원시립 장학재단인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총 1,750만원을 기탁하며, 남다른 애郷심으로 꾸준히 고향을 응원해 온 단체이다. 올해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할 것에 대해 박철수 회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백운농협, 주거환경개선 지원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와 백운농협은 지난 11일 성수면 중평마을에 위치한 거동이 불편한 농가를 방문해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백운농협 김연태 조합장은 "농협의 복지사업으로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려 기쁘게 생각하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의 주거환경 개선은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콜센터(1522-5000)'의 상담과 NH농촌현장봉사단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농협 NH농촌봉사단, 취약농가 생필품 지원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부남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돌봄대상자 1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화장지·세제·라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김범석 지부장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곽동열 조합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취약계층 매트리스 지원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겨울 지 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트리스 88개(약 45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드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아래 추진된 겨울맞이 이웃돕기 사업으로, 협의체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지원 활동 중 하나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하서면,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반 간담회

부안군 하서면(면장 박현선)은 지난 10일 하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하서면 제설봉사단' 간담회를 가졌다. 하서면은 매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제설반을 운영함으로써 폭설시 신속한 제설·제빙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서면 제설반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제설반원 30명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44개 마을에 대해 개인 트랙터 30대로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설작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 제설작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논의와 봉사자들의 위험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